

한스경제 ESG 포럼 발표 자료

ESG 투자기반 확충을 위한 제언

- 공공정보의 개방 및 정비 필요성 -

2021년 5월 26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Why Data and Disclosure Matter

Assessing sustainability risks requires that investors have access to **consistent, high-quality, and material public information.**”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 대한 공개 지지

BlackRock, Larry Fink's 2021 letter to CEOs

ESG 지표 표준화

- 600여개 기관의 ESG 평가 체계



- 국제기구의 표준화 노력
- K-ESG 도입(산업부)

ESG 자료 공시

- 공시의무화 or 자율적 공시



- ESG 관련 공시 의무화
점진적 확대(금융위)

공신력 있는 자료

- 공신력 있는 자료 확보의 중요성



- 정부 보유 ESG 관련 자
료의 활용(환경/노동)

지배구조
보고서

Governance

-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거래소 공시 의무화
- 의무공시 대상을 확대, 전 코스피 상장사 26년 적용

| 적용시기 | 19년 | 22년 | 24년 | 26년 |
|------|--------|--------|--------|--------------|
| 자산총액 | 2조원 이상 | 1조원 이상 | 5천억 이상 | 전 코스피 상장사 |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법인수 200개('19) → 211개('20)

지속가능
경영보고서Environment
Social

- 100여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거래소 공시 회사는 20개사 정도(19년)
- 거래소 자율공시 활성화 및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 ✓ 1단계(~25년):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제시와 자율공시 활성화
 - ✓ 2단계(25~30년):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공시 의무화
 - ✓ 3단계 (30년) : 전체 코스피 상장사공시 의무화

산업 > 기업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말이나” ESG 지표난립에 기업 골머리

입력 2021-04-03 10:20:18 수정 2021-04-03 10:20:18 이수민 기자

일선에서 ESG 관련 업무를 맡은 기업 담당자들은 제각각 다른 평가결과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평가 기관마다 자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평가가 크게 달라 자체적으로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점수를 매긴 평가 기관은 기준을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평가 기관이 여성 인제 채용에 관한 항목을 평가 기준에 넣는다면, 그 비중이 몇 %여야 몇 점인지 등 기업에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상장 대기업 ESG 팀을 이끌고 있는 A씨의 고백이다.

A씨처럼 ESG 경영의 상향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은 이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다. ‘열 길 물속보다 아리송한 것은 ESG 경영 평가 지표’ ‘ESG 경영 원칙이 뜨면 뭉수룩 상당 역할을 자처하는 법무법인과 컨설팅 기업만 행복해질 것’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갑작스레 부상한 ESG 경영 원칙의 취지와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 기관마다 결과가 들쭉날쭉인데다 지표별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혼란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MSCI는 BBB등급을 줬지만 기업지배구조원은 A+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가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기업도 있다. 롯데쇼핑은 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A등급을 받았지만 글로벌 금융 정보 회사 레피티티브는 100점 만점에 49점의 낮은 점수를 줬다. 한국 기업이 국내 평가 기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다. LG전자는 MSCI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는 B+를 받았다. 국민연금이나 금융기관이 투자와 대출을 결정할 때 ESG 항목을 고려하는 만큼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이같이 상이한 결과가 나온 데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송재형 전경원 ESG 테스크포스(TF) 팀장은 “ESG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관마다 중구난방”이라며 “평가 기관이 구체적인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업들의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기업과 각 기관들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데 평가기관은 얼마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 중의 하나인 **공공부문 보유 ESG 관련 자료**들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
(E지표 중 환경부소관자료, S지표 중 노동부소관자료)

· 가장 영향력 클 수 있는 국민연금의 ESG 평가 지표 자료 확보는 ?

| | 이슈 | 평가지표 |
|--------------------------------|-------------|---|
| 환경(E) 3개 이슈 12개 지표 | 기후변화 | 평가 대상 상장기업 중 21개 지표의 자료 입수율은? 자료 입수: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국 가온실가스시스템 등 5개, 지속가능보고서, CSR 보고서 등 |
| | 청정생산 | |
| | 친환경 제품개발 | |
| 사회(S) 5개 이슈 21개 지표 | 인적자원관리 및 인권 | 평가 대상 상장기업 중 21개 지표의 자료 입수율은? 자료 입수 : 사업보고서, 노동부 발표자료(장애인고용비율), 한국인정원(안전보건경영), CSR 보고서 등 |
| | 산업안전 | |
| | 하도급거래 | |
| | 제품안전 | |
| |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 |
| 지배구조(G) 5개 이슈 19개 지표 | 주주의 권리 | 공시의무로 19개 지표 자료 입수율 100% (866개 회사 중 866개) 자료 입수 : 각 회사의 사업보고서에서 일괄 입수 |
| | 이사회 구성과 활동 | |
| | 감사제도 | |
| | 관계사위험 | |
| | 배당 | |

사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체계 및 자료

| 유형분류 | | 환경(E) | 사회(S) | 지배구조(G) | 금융사지배구조(FG) |
|----------|----------|---|--|---|---|
| 기본 평가 | 기업 분류 | <div>환경민감도 상</div> <div>환경민감도 중</div> <div>환경민감도 하</div> | <div>B2C</div> <div>B2B</div> <div>B2B IT</div> | <div>자산 2조원 이상</div> <div>자산 2조원 미만**</div> | <div>상장 금융사</div> <div>비상장 금융사***</div> |
| | 문항 구성 | <div>환경경영</div> <div>환경성과</div> <div>이해관계자 대응</div> <div>3대 대분류</div> | <div>근로자</div> <div>협력사 및 경쟁사</div> <div>소비자</div> <div>지역사회</div> <div>4대 대분류</div> | <div>주주권리보호</div> <div>이사회</div> <div>감사기구</div> <div>공시</div> <div>(일반) 4대 대분류</div> <div>(금융사) 7대 대분류</div> | <div>주주권리 보호</div> <div>이사회</div> <div>최고경영자</div> <div>보수</div> <div>위험관리</div> <div>감사기구 및 내부통제</div> <div>공시</div> |
| 심화 평가 | 분석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부정적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 공시자료·뉴스·미디어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상시 수집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높은 ESG 이슈를 범 위반 여부·중대성·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점 수준을 결정 | | | |

기초자료는 “기업공시자료(사업보고서, 공식홈페이지, 지속가능성관련 보고서 등), 뉴스 등 미디어자료, 감독기구·지자체 등 공식자료”를 통해 입수함(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안내』(홈페이지 게재))

기업지배구조원, H 주식회사 2020년 ESG 평가 보고서 중 환경 관련 핵심 지표 내용

① 환경경영인증 미보유, ② 환경정보공개(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③ 국제이니셔티브 미참여 ④ 환경경영조직(실무조직 보유, 전사적 의사결정조직 미확인) ⑤ 환경교육(임직원대상 환경교육실시) ⑥ 환경성과평가지표(보유) ⑦ 온실가스배출량(확인 불가) ⑧ 에너지 사용량 : 18,848.99 TOE(2018) ⑨ 용수사용량 : 2,244,331 ton(2018), 재이용량 : 353,658 ton(2018), ⑩ 폐기물 배출량 : 배출량 2,529 ton(2018), 재활용량 71,489 ton (2018)

| 구분 | 녹색경영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 환경정보공개제도 |
|---------------------|--|---|
| 개요 | '17년부터 환경부 보유정보를 활용, 녹색경영 수준을 계량화하여 등급화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9개 등급 정보만 공개) | '11년부터 대기업 등 환경영향 큰 기관은 자체적으로 환경정보를 입력, 검증, 공개하도록 책임 부여, 정부·금융기관 등이 활용하도록 함(원데이터 모두 공개) |
| 대상기업('19) (법인기준) | 25,841개소 (대기업·중견기업 9%, 중소기업 91%) | 1,608개소 (공공기관 45%, 기업 55%) * 사업장기준 9,347개소(공공기관 78% 기업 22%) |
| 공개정보 | 오염물질 배출량(20개 정량지표), 통합지도 점검 적발여부 등 33개 평가항목 (정량데이터, 19개 DB) | 오염물질 배출량(7개 정량지표), 환경경영 활동(11개 정성지표) 등 27개 |
| 정보소스 | 환경부 행정 DB 정보를 가공하여 9개 등급으로 기업을 평가 (협약 맺은 금융권에 등급만 제공) (환경산업기술원) | 대상 기업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정보 등록(일부는 자율 입력). 검증 후 원본정보 공개 (환경산업기술원) |
| 주 활용처 | 6개 금융기관 여신·투자시 활용 (신한, 기업, 수출입, 산업, 기보, 신보) | ESG 평가기관, 금융기관 등이 기업환경평가시 다양한 용도로 활용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DB를 활용함에 따라 정보의 수집효율성, 신뢰성, 관리체계성이 높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포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환경정보를 원데이터로 공개하여 ESG평가, 금융기관 등 활용가능 |

• 국민연금은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공개지표 중 6개 지표 활용하고 있으나 enViance 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녹색경영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DB 리스트 예시

| | |
|--------------------------|--|
| <p>공개DB 예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14개 특정오염물질 배출량) 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1그룹, 2그룹 물질 배출량) 국립환경과학원 |
| <p>미공개 DB 예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오염원조사(29개 특정오염물질 배출량, 업체별 비공개) •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업체별 비공개) |

- enViance 시스템 환경 DB 는 모두 19의 DB가 있으며 위 표는 일부만 예시한 것임 (19개 DB 중 대국민 공개는 7개, 미공개는 10개, 2개는 총량은 공개이나 업체별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ESG 평가체계의 '불신'은 평가의 구성요소 외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신뢰성과 공신력**이 매우 중요함
- ESG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top-down)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공신력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프레임**(bottom-up)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음.
- 본문에서 환경부분을 예로 들어 공신력있는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함. 사회부분에서 중요한 지표이지만 자료 입수와 활용이 어려운 **산업재해, 보건 안전** 등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도 **노동부 소관 공공자료**에 상당히 축적되어 있음.
- BlackRock의 래피 핑크도 연례서한에서 ESG 투자의 **신뢰할만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음.
- 한국의 ESG 평가체계 내실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이 **축적하고 있는 ESG 관련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해야 함. 이를 바탕으로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ESG 평가 및 지표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

감사합니다